

 외교부		보 도 자 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접수번호	18-621	
배포일시	2018.10.15.(월)		담당부서	외교부 여권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	외교부 여권과 윤희찬 과장(02-2100-7592)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044-203-2751)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 온라인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결정 -

-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여권 표지 색상과 속지(사증면) 디자인 대폭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된다.
- 디자인 개발 책임자인 김수정 교수는 “표지 이면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해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했다. 속지(사증면)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다채로운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신원정보면을 현재의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 내구성과 함께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춰 최근 여권 신원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
- OECD 36개국 중 15개국이 PC 재질의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현재 PC 여권 도입을 추진 중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사항	비 고
표 지	색상	녹색 → 남색	국민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색상 변경 가능
	형태	2가지 안(A, B)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해 택일	
신 원 정 보 면	재질 및 인쇄방식	종이 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 재질에 레이저 잉그레이빙 방식	3면에 컬러사진 추가
	여권번호	여권번호 체계 변경(영문자 1자리 추가) (M12345678 → M123A4567)	여권번호 고갈문제 해소 목적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범정부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월(月)표시	영문 → 한글/영문	
사증면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적 유물)	

(전자책 형식의 디자인 시안 홍보 및 국민 의견 수렴)

□ 외교부와 문체부는 여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새 여권 디자인을 ‘전자책(eBook)’ 형식의 파일로 제작해 외교부와 문체부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와 ‘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말까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 10.18-28 문화역 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기획전’에서 공공 디자인 대상 수상작, 차세대 여권 개선안 등을 전시할 예정

□ 외교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응해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과 디자인이 개선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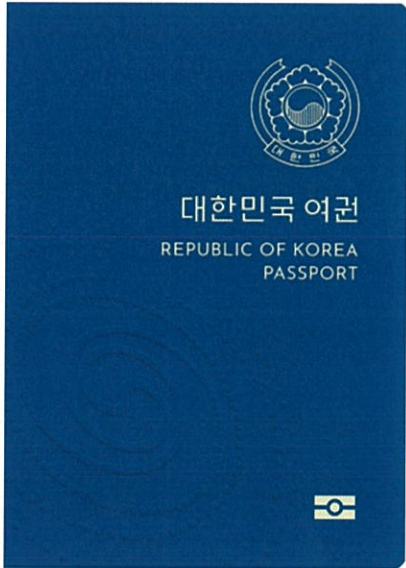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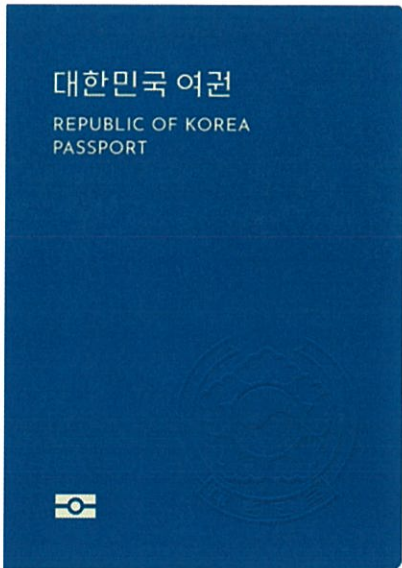
○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차세대 여권 디자인 시안

2. 온라인 선호도조사 설문 문안.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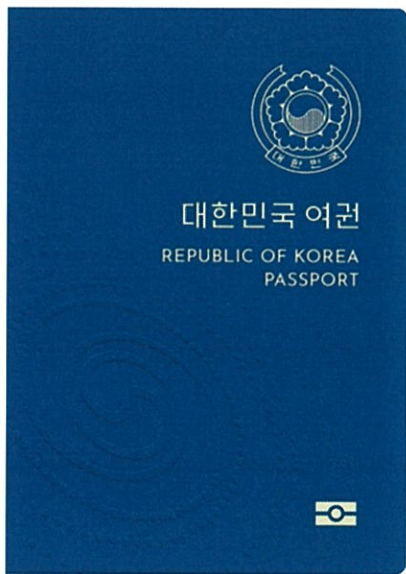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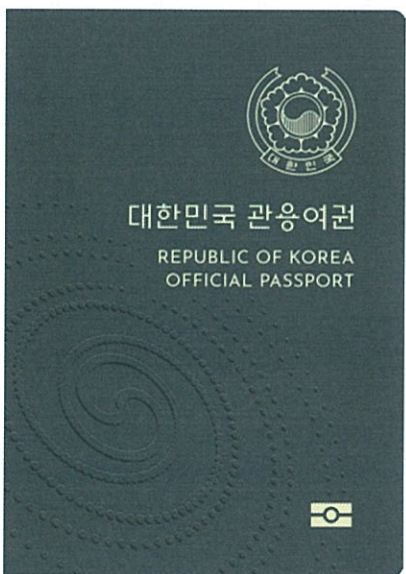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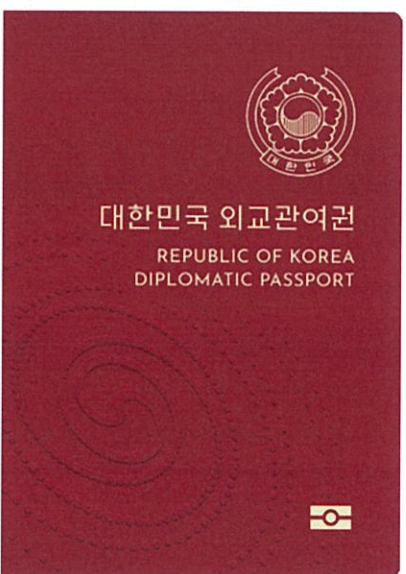
붙임 1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 여권 표지 디자인

	
A안	B안

*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두 가지 디자인 안 중 하나를 선택 예정

□ 여권 색상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현행대로 여권 종류별 색상을 달리할지, 아니면 한 가지로 통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표지 이면 등



- *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하여 전통미와 미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

□ 신원정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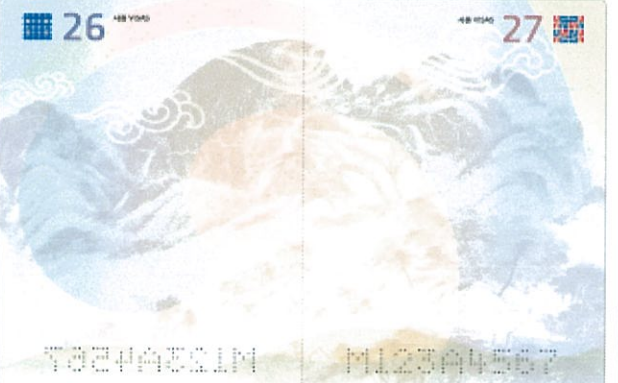


- * 신원정보면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극의 원호형태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공간을 크게 감싸도록 함. 문자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쪽으로 배경에 한글자모도를 배치하여 한글의 기하학적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함
- * 폴리카보네이트재질(현행 여권은 종이재질) 및 레이저 기술 사용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가미해 보안성을 강화함
- *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M12345678 → M123A4567)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며, 월(月) 표기방법을 변경함(영문 → 한글/영문)

□ 사증면

디자인(안)	유물 이름 및 설명
 	<선사시대 대표 유물> ● 화순 대곡리 청동기(팔주령): 방울이 달려 있는 종교의식용 도구로 한국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보여 준다.(국보 제143호)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고래, 사슴, 호랑이, 작살, 활 등을 통해 선사시대의 수렵·어로생활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국보 제285호) ● 빗살무늬토기: 바닥이 뾰족하고 겉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토기로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삼국시대 유물: 신라> ● 신라 부부총 금귀걸이: 누금세공법으로 만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신라의 화려하고 섬세한 세공 기술을 보여 준다.(국보제90호) ● 신라 금관총 금관: 신라 금관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앞쪽은 출(出) 자 모양이며, 뒤쪽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다.(국보 제87호) ● 신라 천마총 천마도: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흠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식품에 그려진 그림으로 신라회화로서의 가치가 크다.(국보 제207호)
 	<삼국시대 유물: 백제> ● 백제 무령왕 금제관식: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의 금관장식이며 불꽃 모양의 화려한 형태와 수준 높은 제작기법이 돋보인다.(국보 제154호) ● 백제 금동대향로: 도교와 불교가 융화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과 미술문화가 집약된 삼국시대 금속 공예의 정수로 꼽힌다.(국보 제287호)
 	<삼국시대 유물: 백제, 신라> ● 백제 산수무늬 벽돌: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벽돌로 배열이 규칙적이며 좌우가 대칭을 이룬 균형 잡힌 구도를 가진다.(보물 제343호) ● 신라 기마인물형 명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도기로 말 탄 사람의 의복과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준다.(국보 제91호)

디자인(안)	유물 이름 및 설명
	<삼국시대 유물: 고구려벽화> ◎ 고구려 강서중묘 주작: 남쪽의 수호신 주작을 표현한 것으로 단아한 자태와 붉은 채색이 돋보이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 고구려 강서대묘 현무: 북쪽 수호신 현무를 섬세하고 대범한 붓질로 묘사한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벽화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얹은 탑이다. 균형 잡힌 단정한 형태는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국보 제21호) ◎ 경주 불국사 다보탑: 4각, 8각, 원형의 탑신을 안정감 있게 구성하고 각 부분의 길이·너비·두께를 통일시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세련미를 극대화한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국보 제20호)
	<고려·조선시대: 공예예술> ◎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구름과 학을 새겨 넣었으며, 고려 매병의 세련미와 고려청자의 뛰어난 제작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68호) ◎ 청자 투각철보문뚜껑 향로: 고려 전기의 청자향로로 뚜껑에 철보무늬가 투각되어 향이 넓게 퍼지도록 만들어진 균형감이 뛰어난 작품이다.(국보 제95호) ◎ 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로 앞뒤 양면이 편평한 모양이며, 물고기를 생동감 넘치게 새겨 넣었다.(국보 제178호) ◎ 백자 달항아리: 여유 있는 곡선과 넉넉한 형태, 은은한 색조로 조선 사람들의 소박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국보 제309호)
	<조선시대 한글> ◎ 훈민정음(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1459년) 중 한글의 창제와 관련 세종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디자인(안)	유물 이름 및 설명
	<조선시대 과학문물> ◎ 천상열차분야지도: 조선 태조 때(1395년) 고구려의 천문도를 표본으로 삼아 천체의 영상을 돌에 새겨놓은 유물이다.(국보 제228호) ◎ 거북선: 조선 정조 때(1795년) 간행된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거북선 그림으로 조선 중기 과학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 앙부일구: 세종16년(1434년)에 장영실 등이 만든 해시계로 둥근 지구 모양을 표현하였고, 시각선, 계절선을 나타내고 있다.(보물 제845호)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동물과 사람> ◎ 맹호도: 한국 호랑이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와 무인의 용맹을 상징한다. ◎ 십장생도 병풍 중 일부(학):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구성된 십장생도 병풍 중 학을 나타낸 그림이다. ◎ 김홍도 <춤추는 아이>: 조선 후기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나오는 작품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구수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일월오봉도: 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 폭포수, 파도를 그린 그림으로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임금의 앉은 자리 뒤편에 놓였다.
	<조선시대 예술: 한국의 자연> ◎ 정선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비가 그친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 (국보 제216호)

붙임 2 온라인 선호도조사 설문 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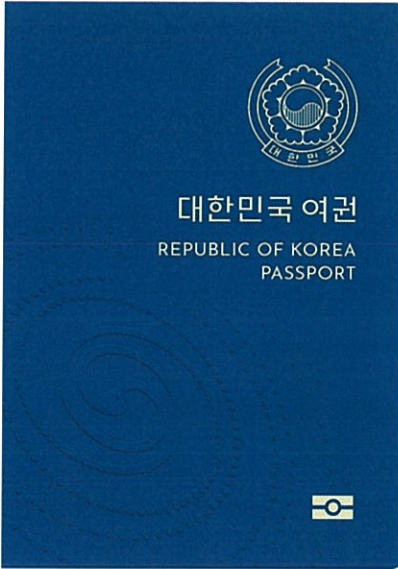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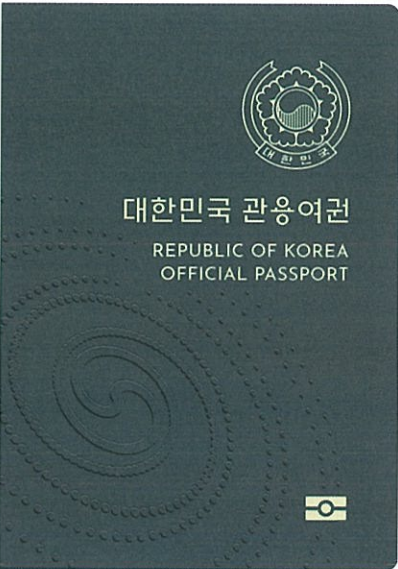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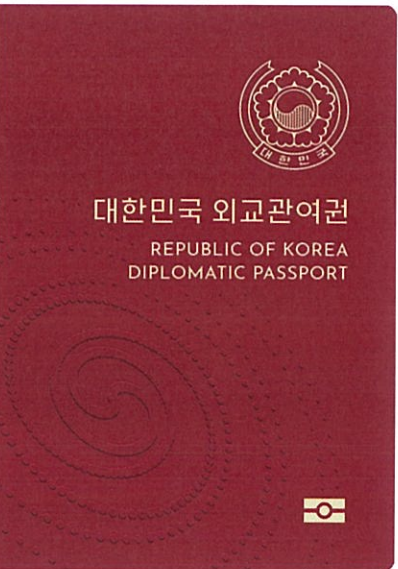
- ☐ 아래 2개의 여권 표지 디자인 중 어느 쪽이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여권의 색상을 종류별[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로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권의 색상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면 어떤 색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색	○ 진회색	○ 적색